

## 명쾌하고 합리적인 국어학자의 세계

- 채완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 교수



채완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 교수

질문자 양명희(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때 2019. 4. 29.(월) 곳 서래마을

선생님의 논문은 언제나 명쾌하며 재미있다.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선생님은 꾸준히 연구하셨다. 석사 학위 논문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와 박사 학위 논문 “국어의 반복 및 병렬에 있어서의 어순에 대한 연구”는 논문을 발표할 당시에도 수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국어 문법뿐 아니라 의미론, 사회 언어학, 형태론, 어휘론에 이르기 까지 연구 영역도 광범위하다. 그런데 그 연구물들이 모두가 새롭고 반짝거린다. 선생님께서는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신어와 유행어를 더 많이 알고 계시며, 어문 규범이나 언어 정책에 대한 시선은 합리적이며 날카롭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선생님의 학문 여정과 국어 정책에 대한 고견을 듣고, 또 전하고 싶어 인터뷰에 나섰다.

양명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하신 후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채완 저는 소소한 일들을 하며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부터 동덕여자대학교에서 퇴임하던 날까지 학교든 직장이든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 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퇴임 전에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학교라는 테두리 밖으로 나와 보니 넓은 세상이 반겨 주는 느낌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쉽다거나 공부 외의 일을 할 때면 꼭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미뤄 두었던 운동이라든지 외국어 공부를 하고, 음악회도 가고 지인들도 만나는 여유를 누리며 제 자신에게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양명희 자신에게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국어학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채완 계기라고 할 만큼 매듭지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느 틈에 국어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교양 과정 때 이의섭 선생님이 지도 교수셨고 첫 전공 강의, 국어학 개론을 안병희 선생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2학년이 되니까 이기문 선생님께서 연구실 열쇠를 주셨습니다. 2학년 때 김완진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당시 4학년이던 서태룡, 김홍수 선배님이 교생 실습을 가게 되어 둘인가 셋이서 김완진 선생님 연구실에서 대학원 강의 같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일석 이희승 선생님과 심약 이승녕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마지막 세대이기도 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복 받은 환

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학교 입학 면접 때 학생 안내를 서태룡 선배님이 해 주셨어요. 이런 물샐틈없는 환경에서 국어학에 빠져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명희** 학부 때 선생님의 석사 학위 논문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를 정말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국어 문법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의성어·의태어, 바둑 용어, 광고 언어 등 정말 재미있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한불자전』에 관련된 논문을 다수 집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전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채완** 『한불자전』이 영인이 되어 나왔을 때 귀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사두었지만 바로 연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한영자전』처럼 단순한 대역사전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불자전』은 방언, 속담도 싣고 있었고, 대역어만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반대어, 예문도 있고 설명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베’를 보면 ‘상민의 자식이 양반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고, ‘아범’에도 ‘상민의 자식이 양반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로, 양반도 그들에게 같은 말을 쓴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심약 선생님 등 스승들께서 외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프랑스어를 공부한 것이 연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명희** 선생님, 그럼 그 전에는 『한불자전』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건가요?

**채완** 그건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엮은 『한불자전 연구』 서문 일부를 인용하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한불자전』은 국어학, 프랑스어학, 가톨릭교에서 관심을 받았지만, 국어학자는 프랑스어 해독력이 떨어져서, 프랑스어학자는 한자나 19세기 한국어 해독력이 낮아서, 가톨릭 교단의 연구자는 사전의 내용

자체보다는 사전 외적 요소에 더 큰 의의를 두어, 이 사전의 내용은 그리 잘 연구되지 못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 역시 프랑스어를 전공하지 않은 국어학자로, 프랑스어 뜻풀이를 하나하나 번역해 가며 사전을 읽을 때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프랑스어과 선생들께 문의도 해가며 떠듬떠듬 번역과 해석을 병행하며 논문을 썼습니다. 《한불자전》에 대해 첫 논문을 투고했을 때 심사 위원 중 한 분은 《한불자전》을 제대로 읽지 못한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전의 뜻풀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을 때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씩 발표하다 보니 사명감 같은 것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의 혼자서 논문을 써 오던 중에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인문한국(HK) 사업으로 《한불자전》을 번역하여 이제는 프랑스어라는 가시덤불을 헤치지 않아도 국어학자들이 마음껏 《한불자전》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에서도 《한불자전》의 일부인 ‘어휘’ 부분만 번역했을 뿐 ‘문법’과 ‘지리’는 아무도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문법’에 몇 번 접근을 시도해 보다가 초고 노트 이상 진행을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한불자전》은 평생 이 사전만 연구해도 될 만큼 흥미로운 책이니까 많이들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 부분은 지리학 분야에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양명희 선생님께서는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로 ‘제1회 심악 이승녕 국어학저술상’을 수상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책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는지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채완 의성어와 의태어는 사전에만 들어 있는 화석 같은 언어가 아니라 일상어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으로 생산되는 특이한 어휘 부류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상의 언어에서 의

성어 의태어는 의미를 압축해서 전달하는 데 적합하며, 자음과 모음을 살짝 바꾸어 어감과 음상을 달리하되 중심 의미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조어를 만들기에 적합하지요. 그래서 현대 생활에서 의성어와 의태어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현장에 주목했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 무척 재미있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의성어 의태어로 신조어를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의성어 의태어는 ‘갑분싸’, ‘워라밸’ 같은 줄임말이나 ‘어그로’, ‘신박하다’ 같은 게임 용어에 뒤지지 않는 신조어의 원천입니다. 새로운 표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 한 의성어 의태어는 계속 새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대만의 학술 대회 발표를 위해 연구 동향을 살펴보니 국어학적 관점의 연구가 많이 줄어들고, 주로 한국어교육 쪽에서 의성어 의태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sup>1)</sup> 국어학적 관점에서도 아직 연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연구자가 줄어드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양명희** 선생님의 국어학적 연구 주제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화기 광고문의 문체”, “광고의 전략과 언어 표현 기법”, “TV 광고 언어의 통합적 해석” 등의 학술 논문과 저서 『광고와 상표명의 언어 연구』 등 광고 언어 분야에 대한 연구물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언어 분야에서 선생님의 흥미를 끄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채완** 현대 사회에서 광고는 중세의 종교만큼이나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언어인데, 제가 논문을 쓰기 시작할 무렵까지만 해도 광고에 대한 언어적 관심은 언어 형식

1) 채완(2016),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연구 동향”, 『한국문화교육연구』 청간호, 대만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

그 자체보다는 ‘광고’라는 내용적 측면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광고 언어가 시나 소설 같은 언어 행위의 주요 갈래 중 하나라는 사실이 간과되었고, 국어학자들은 광고 언어를 일종의 일탈 정도로만 인식 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고 언어에 자주 나타나는 문법적, 어휘적 변형을 오류로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점 까지도 포함하여 광고 언어의 특성으로 보고 광고 언어를 국어학 연구의 독자적 분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현대 광고가 시작된 것은 1886년 한성주보 2월 22일자에 실린 “덕상세창양행고백(德商世昌洋行告白)”에서부터입니다. 독일 무역상인 ‘세창양행’이 광고한 것인데 무슨 물건을 팔고 우리에게서는 무엇을 사겠다는 내용이지요. 참, 잠실에 ‘한국 광고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광고의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어요. 이 광고부터 최근 광고까지 광고 언어의 형식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면 광고 언어야말로 그 시대의 ‘실용-한국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중요한 언어 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나 교과서 같은 정제된 텍스트에는 담기 어려운 당대의 실제 언어 사용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것이 광고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양명희      상표명 역시 광고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채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광고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상표명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일상어의 조어법을 뛰어 넘는 상표명의 조어 방식을 정리해 가며, 구매 욕구를 자극하도록 상표명을 구성하는 방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상표명은 일상어의 조어법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은데 저는 그것이 어법과 문법에 맞지 않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어 내용의 확장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편입니다. 광고와 상표명에 대한 관심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양명희 그러면 선생님, 최근에 ‘네넴띤(비빔면)’, ‘땡작(명작)’, ‘땡땡이(멍멍이)’처럼 글자의 형태를 새롭게 인식하여 만든 신조어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한글 파괴로 보기도 하고, 창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매우 재미있게 받아들입니다. 한글의 자형을 적극 활용한 ‘신박한’<sup>2)</sup> 표현 아닌가요? 물론 계몽적 관점에서 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에 질색을 하시겠지요. 아니 어쩌면 말뜻을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한글 파괴’라는 말을 매우 경계합니다. 한글을 누가 파괴할 수 있습니까? 파괴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한글’입니까, ‘한국어’입니까? 어느 쪽이라도 그렇게 쉽게 ‘파괴’되는 것 이 아닙니다. 언어나 문자 생활도 미술이나 음악같이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매체의 하나입니다. 음악이나 미술에서는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고 찬양하면서, 왜 유독 언어와 문자로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면 야단을 맞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표준어’가 있으니까 표준적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쓰면 되고, 개인적 상황에 따라 기존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의미라면 그에 가장 적절한 새로운 표현을 찾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글을 이렇게 도 써 보고 저렇게도 써 보면서 한글의 표현 영역을 확대해 간다고 보면 안 될까요? 저런 말이나 글자를 즐겨 쓰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설마 이력서나 보고서 같은 데에 저렇게 쓰겠습니까?

양명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른바 ‘급식체’가 더 참신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왜 이러한 논란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채완 이러한 논란은 우리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경직된 태도에서 비롯된

---

2) 게임 신조어로 ‘매우 참신하다’라는 뜻이다.

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요, 정체성이라는 점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감히 한글을 가지고 허튼짓을!’ 하고 발끈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본다면, 한글을 본래의 용도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넘어 한글이라는 글자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활용하며 가지고 놀아도 보면 서 한글이라는 글자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 꼭 나쁜 일일까요? 외국인들이 자국의 국기를 옷 같은 데, 심지어 수영복에도 도안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는 처음에 국기를 모독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친밀하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나요? 언어는 계속 새로운 표현을 추구합니다. 언중들의 자연스러운 표현 욕구를 무조건 억누르려고 한다면 한글은 건드릴 수 없으니 외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많이 시도하는 표기 유희는 한글을 일종의 ‘도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상품명이나 상호에서 로고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언어유희는 생명 주기가 짧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찾아내서 혼내 주려고 벼르는 사이 낚아져 버려서 언중들에게 벼림받습니다.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신조어들 중 살아남는 것은 소수예요. 살아남은 말은 언중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언어는 언어학자나 행정가의 것이 아니고 언중의 것입니다.

양명희 ‘언어는 언어학자나 행정가의 것이 아니라 언중의 것이다.’ 언어학자나 행정가가 귀담아들어야 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국어와 관련하여 신조어뿐 아니라 욕설, 혐오 표현 사용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완 먼저 욕설은 상반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욕설로 인해 폭력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라면, 물리적 폭력으로 가기 전에 욕설

로 적의를 일부 해소함으로써 폭력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는 완충 작용이 나머지 하나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욕설이 없었던 때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고결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욕설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마음에 적의가 가득 차 있을 때 욕설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소위 '패드립(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네요.)'이라는 것도 요즘 아이들이 너무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말 욕설 중 패드립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욕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지 않으면 욕설을 안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기 힘드니까 말로라도 하는 것이고 그편이 차라리 물리적 폭력보다는 나을 것 같군요. 다만 때와 장소를 가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청소년기에는 욕설을 공유하며 서로 유대감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양명희** 어느 시대에도 욕설이 없었던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불자전』에도 욕설이 나오나요?

**채완** 『한불자전』에는 유독 욕설이 많이 나옵니다.<sup>3)</sup> 수록 어휘가 2만 7천여 항목인데 그중 욕설로 볼 수 있는 말이 100개 가까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결핍이나 장애를 가진 개인’에 대한 혐오 표현입니다. 성품이 나쁘거나 남녀 관계가 복잡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들로 그것을 호칭으로 사용하면 바로 욕설이 되는 말들인데, 현대에 와서는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표현을 대놓고 쓰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양명희** 사실 지금은 욕설보다는 혐오 표현이 더 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혐오 표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3) 채완(2009), “『한불자전』에 실린 부정적(否定的) 의미(意味)의 인물명사(人物名詞)”, 『어문연구』 37-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채완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혐오 표현들은 나이나 성별, 인종, 국적 등 특정 집단을 향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집단에 대해 혐오의 틀(프레임)을 씌워 놓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집단의 개개인을 그 프레임 안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일례로, 최근에 여러 정치적 상황과 겹쳐서 노년층에 대한 혐오 표현이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노년층에서는 젊은이들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고,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경로석이 아닌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앉으려면 주변 젊은이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들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개인들끼리 서로 혐오하는 사이가 아닌데도 그러는 것이지요.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질수록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데 특정 집단에 대해 혐오 표현을 덮어씌워 매도하는 일이 심화될수록 통합은 멀어지게 됩니다. 혐오하는 마음과 혐오를 담은 언어, 그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도 모르게 우리 사회가 혐오의 말들로 가득 찬 것은 슬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 양명희 선생님, 주제를 좀 바꾸어 표준 언어 예절에 대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11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 언어 예절』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시어 내용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표준 언어 예절』의 추진 방향은 어땠었는지 궁금합니다.
- 채완 사회의 변화에 따른 언어 예절의 정비가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컨대 전통 사회에서 시누이의 남편이나 처남의 아내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고, 만난다 하더라도 내외해야 하는 관계였으므로 호칭이 없었던 것인데, 요즘은 시누이의 남편(아이의 고모부)이나 처남의 아내(아이의 외숙모)가 스스럼없는 사이가 되면서 호칭이 필요하게 되어 표준 호칭을 정한 것입니다. 또 격

식 없는 자리에서 성인들도 ‘엄마’, ‘아빠’를 쓸 수 있게 한 것 역시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호칭에서 격식과 친밀도는 반비례하므로 요즘은 나이 들어서도 ‘엄마’, ‘아빠’를 ‘어머니’, ‘아버지’로 바꾸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요. 저도 손자가 있습니다만 아들이 제가 아비가 되었다 해서 갑자기 정색하고 ‘어머니’ 하고 부른다면 오히려 서먹서먹하고 서운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엄마’는 자식이 60, 70이 넘어도 여전히 ‘엄마’라고 불러야 ‘엄마’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까?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공적인 자리나 편하지 않은 남의 앞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지요. 당시에 일부 위원들께서는(특별히 거부감이 큰 방언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를 끝까지 반대하셨고, 저는 끝까지 찬성하는 편에 섰습니다. 언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은 규정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언중들이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양명희** 언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은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작년이지요. 《새국어생활》 봄 호 “가족 간의 언어 예절 – 호칭을 중심으로”에서 《표준 언어 예절》에 수정·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완** 사회의 변화에 맞게, 남성과 여성에 대해 균형 있게, 또 누락된 호칭·지칭이 있으면 찾아서 채워야 한다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자녀들을 구별하여 부르도록 한 것은 늦게 결혼하거나 비혼인 사람이 많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며, ‘처부모’를 부를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 원칙이 되 ‘아버님’, ‘어머님’도 쓸 수 있다고 한 것 역시 반대로 ‘아버님’, ‘어머님’을 원칙으로 하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쓸 수 있게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처

부모를 남에게 지칭할 때 ‘장인’, ‘장모’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 중심의 차별적 시각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논문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 앞에서 언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표준 언어 예절》 역시 규정의 하나로 이해되기 때문에 더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표준 언어 예절》의 ‘표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완 기본적으로 ‘표준’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표준 언어 예절》은 크게 어법(인사말 등)에 관한 것과 호칭·지칭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법에 관한 것은 문제가 적지만 호칭에 관해서는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작년쯤부터 결혼한 여성의 가족을(‘시댁’이라고 부르면 간단하지만 ‘시댁’이라는 말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으므로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부르느냐에 대해 인터넷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 빌미를 제공한 것 중 하나가 ‘표준’이란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니 ‘표준’의 뜻에 “「1」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도 있고 “「2」 일반적인 것. 또는 평균적인 것.”도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의 뜻을 「1」로 인식했기 때문에 꼭 지켜야만 할 법규처럼 받아들이고, 자신의 언어 의식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못 지키겠다고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싫으면 그렇게 안 부르면 됩니다. 즉 표준은 「2」의 의미인 거예요.

전통적 사회에서는 일가친척이 한집, 넓어 봤자 한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온갖 호칭·지칭을 저절로 배우며 컸지요. 요즘은 사촌도 만나기 힘들고 심지어 사촌이 없기도 해요. 그러니 당숙이나 종조모를 본 적도 없는데 그 호칭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몰라서 궁금한

경우 하나의 ‘표준’, 사전에서의 두 번째 의미로 제시한 것이 《표준 언어 예절》이라고 봅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쓰이고 있는, 사실은 ‘다른’ 호칭들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겠다는 의도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가족 간의 호칭·지칭은 사회생활에서의 경우와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의 호칭은 전통 사회에서는 없었던 것이니까 전부 새로 만들어 보급하면 되지만, 가정에서의 호칭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고칠 수도, 고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족 간의 호칭은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며, 호칭에 대해 느끼는 어감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호칭까지 국가 기관에서 간섭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지요.

- 양명희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변화된 사회에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같은 호칭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완         요즘에는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와 같은 호칭에 특히 거부감이 강하지요. 이들 호칭은 어원적으로는 19세기까지도 하인이 상전을 부르는 말로, 《한불자전》에도 나옵니다. 그러한 계급이 없어지면서 가족 간의 호칭으로만 남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원적 뜻을 인식하고 쓰나요? 그냥 문자 그대로 ‘호칭’이지요. 그러한 말들이 싫다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 말들을 쓰면서 싫다고 하는 건지, 쓰지도 않으면서 없애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싫으면 안 쓰면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이 말들을 젊은 층에서는 듣기 어렵고, 아마도 ‘고모’, ‘삼촌’ 같은 말을 쓰고 있지 않나요? 며느리, 사위의 이름을 부르거나, 손위 시누이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새아기’, ‘김 서방’, ‘형님’ 등이 뭔가

친밀감이 적고 어색해서지요. 아시다시피 말을 높일수록 친밀도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양명희 ‘처제’, ‘처남’과 대응해서 ‘부제’, ‘부남’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채완 ‘처제’, ‘처남’과 대응해 ‘부제’, ‘부남’을 만들자는 주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더 만드는 거예요. 가족 간의 호칭을 온 국민이 꼭 통일해야 할까요? ‘부남’, ‘부제’를 정하더라도 실제로 쓰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요? 자식들이 부모가 되면 그 자녀들에 기대어 ‘아비’, ‘어미’라고 부릅니다. 시동생, 시누이에 대해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삼촌’, ‘고모’로 부르는 것을 틀렸다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으로 쓰는 것이 편하면 이러한 호칭을 쓰고, 거부감이 들면 ‘고모’, ‘삼촌’이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적어도 호칭, 지칭에 관해서는 획일화하려는 강박을 내려놓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교육에서 교육을 위한 ‘표준’ 형태는 정해져야 합니다. 방언이나 개인어를 인정하더라도 ‘표준어’는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지요. 표준어가 있다고 해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 없듯이 호칭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것입니다.

양명희 교육을 위한 ‘표준’의 형태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채완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실현되는 호칭에 대해 몇몇 전문가의 직관이나 경험만으로 그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도 꼭 믿을 것은 못 됩니다. 인터넷에 의견을 활발히 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언중들의 ‘표준’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책을 정하기 전에 지역과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조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양명희 선생님께서는 국립국어원의 여러 과제에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셨

고, 2014년 2월부터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국어 정책이 지향할 바에 대한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채완** 저는 시종일관 한국어의 어휘는 풍부할수록 좋고, 획일주의와 함께 순혈주의도 조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외래적 요소가 없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언중들이 새말을 만든다면 필요 해서 만드는 것이고, 어떤 지역의 정서는 꼭 그 지역의 말, 방언으로 해야 말맛이 삽니다. 어떤 말은 외래어로 표현해야 의미가 정확히 전달됩니다. 외래어에서 왔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정착되어 이미 우리의 정서를 담고 있는 말이라면 우리말인 거예요. 『표준국어대 사전』에 ‘잠바’와 ‘점퍼’가 다 실린 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의성어·의태어에서 자음·모음이 교체된 유사한 형태 중 하나만 표준어로 정했던 것이 기존의 표준어 규정인데, 저는 조금이라도 말맛이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단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휘를 늘릴 지언정 줄이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어 정책도 언중들의 직관을 무시하고, 계몽하고 이끌겠다고만 생각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언중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지요. 이제 계몽의 시대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양명희** 끝으로 이건 제가 선생님께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채완**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저에 대해 국한해 말한다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와 정신이 모두 소중하듯 가정과 직장, 일과 쉼 모두 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그러지 못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치우치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수십 년을 공부에 대한 강박 속에서 살았으므로, 이제는 저 자신에게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잘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양명희 긴 시간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나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좀 더 저를 지켜보고 정하려고 합니다.